

# 이웃과 외친 “대~한민국”... 승리의 감동 두 배

### 광주다시서서지원센터, 쪽방 주민들과 단체 응원 동점골·역전골에 들썩...“함께여서 더 즐거웠다”



“진짜는 명승부였습니  
다. 짜릿한 역전승의 순간을  
함께해 가슴이 벅잡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광  
주 동구 대인동 광주다시서  
서지원센터 쪽방상당소. 이곳에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을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다시서서지원센터는 치킨과 무알  
코올 맥주,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를 준비  
해 주민들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주민들은 상당소를  
찾아 자리를 채웠다. 센터 직원과 자원봉

사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대한축구  
협회 공식 응원용 붉은 두건과 응원봉을  
나눠주고 대형 TV를 점검하는 등 응원 준  
비에 분주했다.

붉은색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주민  
들은 응원도구를 손에 든 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  
리자 상당소는 순식간에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 한 주민이 “대~한민국 짹짹  
짜 짹”을 선창하자 다른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달랐다.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고 응원전에 참석한 문영복  
(63) 씨는 “월드컵 응원전을 한다는 소식  
을 듣고 오랜만에 붉은색 옷을 꺼내 입었



12일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다시서서지원센터 쪽방 상당소에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승리를 기원했다.

다”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16강에 진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응원 열기  
는 더욱 뜨거워졌다. 전반 13분 이강인의  
슈팅과 전반 38분 손흥민의 슈팅이 아쉽  
게 골문을 벗어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  
져 나왔다.

후반 13분 체코에 선제골을 내줬을 때

는 안타까운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주민들  
은 “아직 안 끝났다”, “할 수 있다”며 서  
로를 격려하며 응원을 이어갔다.

후반 21분 황인범의 동점골이 터지자  
상당소는 환호성으로 들썩었다. 이어 후  
반 34분 오현규의 역전골까지 나오자 주  
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고 응  
원봉을 흔들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경기 막판 체코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경기를 지켜봤  
다.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이 나올 때마다  
“다행이다”, “조금만 버티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주민들은 서  
로 손을 맞잡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박호균(70) 씨는 “4년 전 월드컵은 혼  
자 TV를 보며 응원했는데 오늘은 이웃들  
과 함께 응원해 더욱 즐거웠다”며 “선제  
골을 내줬을 때는 걱정했지만 동점골과  
역전골이 터져 정말 짜릿했다. 월드컵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지숙 사회복지사는 “평소 무뎠던  
단 주민들이 함께 웃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응원이 떠오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응원전이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 오늘의 날씨

맑음 05:17	달림 04:46
맑음 19:48	달림 20:21



광주	16~28
목포	18~29
여수	18~27
순천	18~29
구례	17~29
광주	16~28
신도	18~27
흑산도	18~25
고흥	17~27
진도	17~27

목포	미물(고)	02:04 / 13:59
	샘물(저)	07:27 / 19:24
여수	미물(고)	08:54 / 21:40
	샘물(저)	02:56 / 14:56

### 구급대원 때린 50대 체포

마네편 ○...새벽시간대  
구조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광주 서부경찰은 14일 구급대  
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  
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길거리에서 50대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마취한 A씨는 지인  
이 넘어지자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

하지만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을 내뱉  
고, 자신의 주먹으로 B씨의 오른  
쪽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고.

A씨의 갑작스러운 주먹질로 B  
씨는 길바닥으로 넘어지는 등 부  
상을 입었지만, 계속 응급조치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경찰권제지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인·폭행은 단순 개인의 문  
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에 직  
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  
죄다”고 강조.

송태영 기자 sty1235@

##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소통창구 17일 출범

### 6개 분과·120명 규모 운영...온·오프라인 의견 반영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  
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와 시  
민을 잇는 소통 창구인 ‘시민소통위원회’  
가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전남광주 특별시민  
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협의기구로, 시민  
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14일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에 따  
르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열  
고 향후 운영 체계와 활동 방향,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을 담은 운영계획안을 공  
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각계각층 시민 대표와 교육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한 본  
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효율적인 의견 수렴  
과 전문적인 정책 검토를 위해 총 6개 분  
과로 구성된다. 조직은 위원장과 고문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분과장, 자원위원,  
일반위원 등으로 꾸려지며, 위원회 운영  
과 실무를 지원할 사무처도 별도로 설치  
한다.

준비위원회는 출범에 앞서 위원회의 내  
실 있는 운영을 위한 단계별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직본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 인력 구성과  
6개 분과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범 이후에는 분과별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공청회와 공  
식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에  
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의 뜻이 정  
책으로 이어지는 소통 행정의 출발점”이  
라며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청회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지속적  
으로 소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  
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대한민국 해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린 12일 조규성 선수의 모교인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린 응원전에서 재학생들이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112에 1만6000번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 경찰관 43명 피해 호소... 협박 문자 폭탄 발송도

3년여 동안 112에 1만6000여 차례 전  
화를 걸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  
낸 50대 여성이 호소에서도 실형을 선  
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  
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  
에 대한 호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  
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 전남 목포에서 112에 총 1만6568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상황실  
근무 경찰관 43명이 피해를 호소한 것  
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 경찰관들을 상대로 집요  
한 연락도 이어갔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목포경찰서 소속 형사  
에게 495차례 문자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보내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고, 경찰서  
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드러났다.  
또 2024년 1월에는 전남경찰청을 찾  
아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른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인 정신  
근무 경찰관 43명이 피해를 호소한 것  
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 경찰관들을 상대로 집요  
한 연락도 이어갔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목포경찰서 소속 형사  
에게 495차례 문자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보내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고, 경찰서  
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 ‘음주 키보드’ 현직 경찰 적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키보드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소  
속 A경장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광주  
도로에서 전동키보드를 운행하다가 경  
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A경장의 혈중알  
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키보드 등 개인형 이  
동장치는 음주 상태 운행이 금지돼 있으  
며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  
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위반은 형사 입건 대상은 아  
니지만, 보유 중인 모든 운전면허는 행정  
처분으로 취소된다.

전남경찰청은 A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gwangnam.co.kr

## 대화가 번지는 시국선언... 집계 사이트까지 등장

### 성명·선언문 온라인 사이트 ‘한 표의 기록’ 개설 광주·전남 12개 대학 참여...재발 방지 요구 최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전국 대학가의 시  
국선언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성명과  
선언문을 집계한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  
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인터넷 등에 따르면 ‘한 표의 기  
록’ 사이트에는 현재까지 전국 212개 대  
학(241개 캠퍼스)에서 발표한 성명과 시

국선언문 391건이 수집·게시됐다.  
지난 4일 개설된 이 사이트는 “참정권  
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는 취지로 전국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대자보 등을 모아 공개하고 있다.

개설자는 “누군가의 한 표가 행사되지 못  
했다”며 “사라진 한 표를 기록하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대학가의 움직임  
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송원대, 남부  
대가 성명에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세한  
대, 한국에너지공대, 국립순천대 등이 이  
름을 올렸다.

사이트 분석 결과 대학가에서 가장 많  
이 요구한 사항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었다. 전체 성명 가운데 251건(64%)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은 190건(49%)으로 집계됐다.

성명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민주주의’였고, 이어 ‘참정권’, ‘신뢰’,  
‘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문제  
가 아닌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 문제  
로 규정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1일 전남대 총  
학생회 등이 시국선언을 했다.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정시  
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선거  
관리에 실패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을 위해 부여된 독립  
적 지위가 오히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

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가치와 연결해  
해석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  
항쟁은 모두 대학생들의 참여와 열정에  
서 시작됐다”며 “오늘 광주의 정신이 살  
아 있는 전남대학교 5·18광장에서 국가  
에 의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  
원의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 요구안으로 △국정조사 및 특  
검법사를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참정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  
는 구제 방안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독  
립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임영진 기자 look@gwangnam.co.kr